

한국어 개역 성서의 용어가 일본어 번역 성서로부터 받은 영향

- 창세기를 중심으로 -

김사요*

1. 서론

한국어 성서 번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어 번역 성서가 영어, 한문, 일본어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번역 본문을 검토하여 어떤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인한 논문들은 별로 만나지 못하였다. 일본어를 잘 아는 제일 한국인으로서, 필자는, 일본어 성서와 한국어 번역 성서를 비교해 보면 영향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 개역 성서의 개역 과정에 영향을 준 여러 역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일본어 번역 성서가 한국어 번역 성서에 준 영향을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을 쓰는 계기가 되었던 대표적인 구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면박(面帕)

창세기 24 : 65 종의게 말하대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게로 마조오는자(者)가 누구뇨 종이 가로대 이는 내 주인(主人)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面帕)**을 취(取)하여 스사로 가리우더라

한국어 개역 성서에서는 이 '면박(面帕)'이라는 어휘가 여섯 곳에서 나온다. 이 여섯 예들 가운데, 창24:65, 창38:14, 창38:19에서 한국어 개역은 '면박(面帕)'으로 되어 있고, 일본어 번역 성서에서는 각각 복의(覆衣), 피의(被衣), 피의(被衣)로 되어 있으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¹⁾ 반면 나머지 사3:19, 사25:7, 사47:2에서는 한국어 개역과 일본어 번역 성서가 '면박(面帕)'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다.

(2) 식사(食事)

룻기 2 : 14 **식사(食事)**할 때에 보아스가 룻의게 낄아대 이리로 와서 썩을 먹으며 네 썩조각을 초에 썩으라 룻이 곡식(穀食) 버히는자(者) 곁에 안즈니 그가 복근 곡식(穀食)을 주매 룻이 배불니 먹고 남았더라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

1) 일본어 사전(『大辭林』, 松村明 編輯, (三省堂, 1990))에서 다음 단어의 뜻을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覆衣(복의): 覆衣로는 사전에 없다. '覆'으로 : ①②③④⑤의 다섯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②의 뜻이 '덮다', '싸다'로 쓰여 있다.

被衣(피의): 被 → かずき[被 · (被衣)]. [動詞「かづく」の連用形から。「かつぎ」とも]. 여기에 맞는 뜻은 ① 頭にかぶること (머리에 씌운다), ②③ 다른 뜻.

面帕(면박): 다음 일본어 사전에도 없다. * 『大辭林』, 松村明 編輯, (三省堂, 1990), 『廣辭苑』(第四版), 新村出 編輯, (岩波書店, 1992).

여기서 살펴본 ‘면박’(面帕), ‘식사’(食事)라는 두 가지 어휘는 모두 한국어 번역 성서 중 개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원래 한국어 어휘에는 없었던 단어들이다. ‘면박’은 현재의 국어사전들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말이고, ‘식사’는 지금 사용되는 대부분의 국어사전들에서는 표제어로 실어 놓았지만, 중세어 사전²⁾이나 한국의 고전 문헌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말이다. 특히, 면박(面帕)과 같은 낱말은, 간이국한문 성경의 한자어 표기와 개역한글판의 한국어 표기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³⁾, 많은 논란이 되었다.

이 낱말들을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와 중국어 성서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 낱말들이 일본어 성서에서 들어온 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⁴⁾.

2. 연구 방법

연구의 성격상 본문 비평적 연구, 즉 히브리어 본문이나 그리스어 본문을 확인하면서 각각 일본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을 살펴야 하고, 원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여 번역을 하였는지, 또는 원문의 문장 구조와 번역문의 문장 구조를 살펴서 두 번역문의 문장 구조가 어떤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까지 다루지는 않았고, 단지 어휘 차원의 유사성과 영향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휘와 어순이 유사하다는 점과 한자어를 같이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어휘 차원의 검토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국어 성서의 번역 및 개역의 역사가 보여 주는 바에 따르면, 성서를 번역하는 번역자들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한 구성원은 한문 성서를 참고한 한국인 번역자들이고, 나머지 또 다른 구성원은 영역(英譯) 및 원전을 다루던 서양 선교사들이다. 먼저 한국인 번역자들은 이미 한문역과 일본어 번역이라는 하나 이상의 ‘저본(底本)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역이 번역될 무렵에는 이미 여러 언어 번역본이 나와 있었다. 따라서 번역자들 중에 원전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번역된 번역판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새로운 번역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어를 다루는데 있어 심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을 번역자들에게 있어서 초창기 국역성서 번역은 기존에 있던 번역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⁵⁾고 할 수 있다.

대한성서공회가 번역한 한국어 번역은 신약이 1900년에, 구약이 1911년에 출판되었고, 그 직후부터 날권별로 개정이 이루어져 1938년에 개정이 완료되어 『성경전서 개역』이 나오게 되었다. 이 개역도 다시 개정되어 1952년판 개정과 1956년판 개정으로 이어지고, 1964년에 개역 간이국한문판(簡易國漢文版)이 나왔다.

우선 중국어와 일본어 성서 중에서, 시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할 수 있는 번역들을 찾아볼 때, 중국어 역본의 문리역본들 중에서는 대표역본(신약 1852, 구약 1854)을, 일본어 역본에서는 명치역(明治譯, 1887)의 개역본인 대정역(大正譯, 1917), 문어역(文語譯, 1930)을 말할 수

2) 유창돈(劉昌惇), 『이조어사전』, 1964년 초판, 1969년 4판, 연세대학교출판부.

3)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의 차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 3.1.1. 참조.

4) 『대한성서공회사II』에서는 “방송좌담회, 성서와 우리문화”(〈聖書韓國〉 회년 특집호, 1960. 6, p46.)에서 인용한 말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본격화된 식민통치의 영향 아래에서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개역은 구역보다 좀더 난잡한 문체를 지니는 약점도 가지게 되었다.” 『대한성서공회사II』(대한성서공회, 1994)

5)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p.105.

있다.

일본어 문어역 성서에 대하여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1887년에 완성한 명치역(明治譯) 성서는 개역할 필요가 있어 1917년에 개역이 이루어졌지만⁶⁾, 이것은 신약에만 머물렀고, 구약은 1930년에 개역을 완성하였다. 이것을 문어역 성서라 한다. 참고로 명치역의 저본이 된 것은 한국어 구역·개역이 저본으로 한 중국어 대표역본이 아니라, “브리지만·컬버트슨 역”⁷⁾임을 밝힌다.⁸⁾

한국과 일본의 번역사(翻譯史)가 비슷하면서도 그 시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일본보다 늦은 한국어 개역 작업에서 참고할 다른 언어 번역본을 선택할 때, 가장 유용했던 번역본은 일본어 번역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 번역 성서의 개역 단계에서 사용하였던 일본어 번역 성서는 과연 무엇이였을까? 신약의 경우에는 역본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있는데⁹⁾, 구약의 경우에는 없다. 그러나 아마도 1917년에 신약 부분의 개역을 완료한 일본어 개역 성서인 대정역(大正譯), 혹은 1930년에 구약 부분의 개역을 완료한 문어역(文語譯)을 사용했을 것이다.

필자는 먼저, ‘면박’과 ‘식사’가 들어 있는 구절들을 서로 비교하여, ①에 중국어 대표역본, ②에 한국어 구역, ③에 한국어 개역, ④에 일본어 문어역¹⁰⁾을 넣어 비교가 되는 어휘를 굵게 이탤릭체로 표시하고 살펴 보았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한국어 개역과 일본어 번역이 서로 일치하는 구절들과 일치하지 않는 구절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검토 결과를 근거로 하여 창세기 본문을 비교해 보고 그 영향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3. ‘면박’과 ‘식사’가 들어 있는 구절 비교

3.1. 한국어 개역과 일본어 번역이 일치하는 구절들

1) 면박

이사야 3:19¹¹⁾

- ① 去其耳環手釧, 褫其籘 **面之帕**
- ② 귀의 고리와 손의 고리와 **낫출** **마리우는 망사**와
- ③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면박(面帕)**과
- ④ **耳環** **手釧** **面帕**
귀고리 팔목고리 면박

6) 대정(大正)역, 1922년에 재판이 나왔다.

7) 신약 1859년, 구약 1862년. 대표역본 위원회 중 다른 또 하나의 단체도 번역을 진행하였다. 이 번역의 주요 인물은 브리지만(E. C. Bridgman)과 칼버트슨(M. S. Cullbertson)이다. 그들은 이전의 한문성서를 새롭게 번역하려고 결심하여 독자적인 방법과 원칙으로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문장 수준은 대표역본보다 떨어지지만 원문에 충실한 점은 대표역본을 넘어섰다. 일본어 번역의 최초의 번역자가 미국인이었다는 것과 원문의 충실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역본이 일본어 번역본에게 준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쉽게 엿볼 수 있다. 矢崎健一, “中國語聖書翻譯史小史”, 『聖書翻譯史研究』(東京: 日本聖書協會, 1972), pp.33-34.

8) 『和譯聖書の歴史』, (東京: 日本聖書協會, 1999.), p.5.

9) 『대한성서공회사 II』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본어 번역 성서는 “일본어 개역 성서”이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각주가 같은 쪽에 나온다. 『대한성서공회사 II』, p.172.

10) 문어역 본문(1933) 아래에 문자적으로 직역한 필자의 한국어 행간번역을 넣었다.

11) 한국어 개역과 일본어 번역에서 서로 일치하는 구절은 이 외에 이사야 25:7, 47:2이 있다.

(1) (사 3:19)에서는 중국어 대표역본, 한국어 개역, 일본어 번역은 거의 똑같은 '면박(面帕)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개역은 대표역본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面之帕(대표역본) 보다는 '面帕(일본어 문어역)이 개역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2) (사 25:7)에서는 '帕蒙面(중국어 대표역본: 얼굴을 가리는 수건), '面帕(일본어 문어역)을 비교하여 보면, 구역에서 '낫 수건'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개역에서 면박(面帕)으로 변한 것으로, 후자의 영향이 그대로 개역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3) (사 47:2)에서는 '帕(중국어 대표역본)와 '面帕(일본어 문어역)을 보면 구역에서 '장옷'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개역에서 면박(面帕)으로 변한 결과 일본어 번역이 중국어 대표역본보다도 개역에게 더 영향을 끼쳤는지 분명하게 나타난다.

면박(面帕)은 일본어 사전에도, 한국어 사전에도 없지만, 일본어 성서에는 있다. 여기서 '面帕'을 한자(漢字) 사전에서 찾아 본 결과, 다음 어느 한자 사전에도 面帕(면박)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즉 『東亞漢韓大辭典』¹²⁾, 『太子源』¹³⁾, 『大漢韓辭典』¹⁴⁾, 『漢韓大字典』¹⁵⁾, 등이다. 또한 면박(面帕)은 다음 어느 한글사전에도 面帕(면박)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한글사전』, 『에센스 국어사전』¹⁶⁾, 『큰사전(2)』¹⁷⁾, 『새 우리말 큰사전』¹⁸⁾ 등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帕' 자가 '박'이 아니라 '과'나 '과'로 발음된다는 사실이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간이(簡易) 국한문(國漢文) 개역한글판』에서 이 말이 면과나 면과로 읽히지 않고 '면박'으로 읽히고 있음을 볼 때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 (가) 구약 성서 해당 부분에서 면박(面帕)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런 뜻으로 쓰일 때 면건(面巾), 면백(面帛)으로 쓰고 있다. : 『東亞漢韓大辭典』에 의함.
- (나) 왜 '면박(面帕)'으로 쓰였을까? - '帕'(박)자와 '帛'(백)자는 획수가 똑같으므로 같은 글자로 오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 (다) 그럼에도 '帛'자는 '백'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왜 '박'으로 읽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박'이라는 발음을 지니고 있으며 '帕'자와 비슷한 글자들(拍, 泊, 珀, 粕, 狛, 舶, 箔, : 즉 흰 백자(白)를 가진 것들)과 혼동하여 '박'이라고 읽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2) 식사

룻기 2:14

① 波士曰 食時爾菜食餅, 濡所擊者於醯.

婦坐於穫者之側, 波士予以烘穀, 婦食果腹, 而懷其餘.

② **떡을 때**를 당하야 보아스가 룻의게 널으디 너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떡 덩이를 장에 썬으라 하니 룻이 곡식 거두는자 것헤 안지매 복근 곡식을 주거늘 비부르게 먹고 눕긴 지라

③ **식사(食事)**할 때에 보아스가 룻의게 널아대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썬으라 룻이 곡식(穀食) 버히는자(者) 것헤 안즈니 그가 복근 곡식(穀食)을 주매 룻이

12) 이가원 외 감수, (동아출판사, 1982).

13) 장삼식 저, (집문당, 1984).

14) 장삼식, (교육서관, 1987).

15) 이상은 감수, (민중서림, 1966).

16) 민중서림, 1996, 제4판.

17) 한글학회, (을유문화사, 1957).

18) 신기철, 신용철 편저, (삼성출판사, 1990, 제3판).

배불니 먹고 남았더라

④ ボアズ かれに いひけるは 食事の時は 此に きたりて この
 보아스 그에게 말하기를 식사의 때는 여기에 와서 이
パンを 食ひ 且 汝の 食物を この 醋に 濡せよと 彼 すなはち
 빵을 먹고 또 당신의 식물을 이 초에 적으라 그 즉 곡식
刈者の 傍に 坐しければ ボアズ 烘麥を かれに 與ふ 彼
 거두는 자 곁에 앉으니 보아스 볶은 곡식을 그에게 주니 그
くらひて 飽き 其 餘を 懷む
 먹고 만족해하고 그 나머지를 품었더라

이 구절에서는 개역이 대표역본에서도 구역에서도 쓰지 않고 있는 '식사'라는 어휘를 일본어 번역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번역 시기를 보아 개역이 일본어 번역 성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한국어 개역과 일본어 번역이 일치하지 않는 구절들

1) 면박

창세기 24:65¹⁹⁾

① 利百加遙望以撒問僕曰，遊於田而來逐者爲誰。

僕曰，是我主也，女遂下駝取~~肩~~自蒙。

② 종의게 말하디 밋해서 노니다가 우리를 영접하러 오는자 누구뇨 종이 굴으디 이는 우리 상던이라 혼디 리브가가 너울을 취하야 쓰거늘

③ 종의게 말하대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게로 마조오는자(者)가 누구뇨 종이 가로대 이는 내 주인(主人)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面物)을 취(取)하야 스사로 가리우더라

④ 僕に いひけるは 野を あゆみて 我等に むかひ來る 者は

종에게 말하기를 들을 걸어서 우리에게 마주 오는 자는

何人なるぞ 僕 わが 主人なりと いひければ リベカ 覆衣を とりて

누구인가 종 내 주인이라고 말하자 리브가 덮는 의복을 취하여

身をおほへり

몸을 씌우더라

2) 식사

삼상 16:11²⁰⁾

① 又曰，爾子悉在於此乎。曰，尚有季者牧羊。撒母耳曰，速召之，我不少坐以食，待季者至。

② 또 이새드려 말하디 네 아들이 이뿐이나 디답하디 아직 므즈막 아들이 잇서 양을 치느이다 삼우엘이 굴으디 사롬을 보내여 다려오라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가 안지아니하겠다 하더니

③ 또 이새의게 낄아대 네 아달들이 다 여기 잇나냐 이새가 같아대 아직 말(末)재가 남았는대 그가 양(羊)을 직히나이다 삼우엘이 이새의게 낄아대 보내여 그를 다려오라 그가 여기

19) 한국어 개역과 일본어 번역에서 일치하지 않는 구절들은 이외에 창세기 38:14, 38:19 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 구절들의 각 역본 본문을 제시하지 않는다.

20) '식사'로 한국어 개역과 일본어 번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구절들은 이외에 삼상 20:5, 20:27, 20:29, 20:34, 왕상21:4, 21:5, 21:7 이 있다.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食事)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④ サムエル、エッサイに いひけるは 汝の 男子は 皆 此に をるや

사무엘, 이새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들은 다 여기 있느냐

エッサイ いひけるは 尙 季子 のこれり 彼は 羊を 牧をるなりと

이새 말하기를 아직 말째 남아 있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サムエル、エッサイに いひけるは 彼を 迎へきたらしめよ かれが 此に

사무엘, 이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려오게 하여라 그가 여기

いたるまでは 我ら 食に就かざるべし

오기까지는 우리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나이다

1911년의 구역(舊譯)에는 ‘식사’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중요한 개념어들을 모두 한 자어로 번역한 『선한문성경전서』(1926)에서도 ‘飲食을 食하다’, ‘飲食을 잡수시다’ 등으로 나오고, ‘食事’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이 성서를 만들었던 이들이 당대의 한학자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성서에서 단 한 번도 ‘식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연한 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1938년의 『성경 개역』에서부터 이 말들이 사용되었고, 그것도 룯기와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1947년에 나온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우리말 큰사전』에는 ‘식사’가 표제어로 나와 있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떡다’와 ‘잡수시다’ 사이의 중립적 용어로 ‘식사하다’가 쓰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²¹⁾

유 창돈(劉昌惇)의 『이조어사전』²²⁾에는 ‘식사’가 표제어로 나와 있지는 않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한 『17세기 국어사전』²³⁾에도 ‘식사’가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13만 5천여 개의 어휘가 실려 있는 『동아한한대사전』²⁴⁾의 표제어 食(식) 항에 보면, ‘食(식)’ 자와 결합하여 쓰이는 낱말이, ‘식(食)’ 자가 앞에 오는 말 113개, ‘식(食)’ 자가 뒤에 오는 말 82개 이렇게 195개의 표제어가 실려 있는데, 그 속에 “食事(식사)”라는 말은 없다. 장 삼식이 지은 『大漢韓辭典』²⁵⁾에도 ‘食(식)’ 자와 결합하여 쓰이는 낱말이, ‘식(食)’ 자가 앞에 오는 말 100개, ‘식(食)’ 자가 뒤에 오는 말 33개 이렇게 133개의 표제어로 올라 있는데, 그 속에도 ‘食事(식사)’라는 말은 없다. 이 말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특별한 사건을 이르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늘 해야 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큰 사전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말이 전통적으로 쓰이지 않던 말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준다.

다만 게일이 만든 사전인 『韓英字典』에는 ‘식스(食事)’가 표제어로 나와 있다²⁶⁾. 그러나 게일 이원모의 번역성서인 『新譯新舊約全書』(1925)에는 이 말이 들어 있지 않다. 이원모가 뛰어난 한학자였던 점을 생각하면, 그들이 번역한 성서에 ‘식사’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당시에 이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던 말이라는 소극적 증거일 수 있다. 구역에서 한 번도 쓰이지

21) 학문, 건축, 행정 등 여러 분야에 일본식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군대 용어에 일본식 한자어가 많이 나타나며, ‘식사’도 그러한 어휘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식사 개시, 식사 끝”과 같은 말들은 한국 군대에서 훈련을 받은 남자들은 신병 훈련소의 대표적인 용어로 기억한다.

22) 1964년 초판, 1969년 4판, 연세대학교출판부

23) 1995, 태학사 간.

24) 동아출판사, 1982, 서울.

25) 장삼식, (교육서관, 1987).

26) (耶蘇敎書會, 明治一四年) (KOREAN-ENGLISH DICTIONARY, JAMES SCARTH GALE, 1911).

식스: s, 食事 (밥) (일) Eating; fare See 식음.

않았던 말이, 개역에서 일본어 성서와 같은 자리(룻기 2:14)에서 처음 나온다는 점만으로도, 일본어 성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본 논문의 논지를 증명하기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어 번역이 일본어 번역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때, 명백하게 확인되는 부분은 주로 어휘의 차용(借用) 부분이다. 따라서 필자는 일본어 번역의 어휘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한국어 번역에 들어와 있는지를, 이하의 논술을 통해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4. 한국어 개역 과정에 일본어 번역 성서가 끼친 영향 검토

여기서는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성서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사용한 텍스트는 중국어 대표역본, 한국어 구역, 개역 성서, 일본어 문어역 성서이다.

차이와 유사성을 보이는 부분을 모두 검토하였고²⁷⁾, 본 장에서는 그 가운데서 특징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부분들만을 제시하였다. 검토 결과는 모두 분석하여 4.2.장에서 표로 제시하였다. 본문을 비교한 순서는 다음 같다.

ㄱ) 먼저 한국어 구역(1911)과 개역(1938)의 본문을 비교한다.

ㄴ) 위의 두 본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밝히고자 한다. 주로 한자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어 문어역과 비교하고자 한다.

ㄷ) 여기에서 일본어 번역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경향이 보이는 곳에서는 중국어(中國語) 대표역본과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어떤 영향이 중국어역에서 왔는지 일본어역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ㄹ) 비교표에 나오는 ①에서는 중국어 대표역본, ②에서는 한국어 구역, ③에서는 한국어 개역, ④에서는 일본어 문어역, 그 밑줄 아래에는 일본어 문어역을 문자적으로 직역한 필자의 한국어 행간 번역을 넣고자 한다.

ㅁ) 여기서 열거한 어휘들은 ①, ②는 일치하지 않고 ③, ④는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ㅂ)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어휘는 굵게 이탤릭체로 표시를 하였다.

u>

4.1. 창세기 본문 비교

창세기 1: 2

① 地乃虛曠, 淵際晦冥, 上帝之神, 煦育乎水面.

② 싸이 혼돈 하야 공허 하고 깊흠 우에 캄캄 흠이 잇는디 하느님의 신이 물 우에 운동 하시디 라

③ 싸이 혼돈(混沌) 하고 공허(空虛) 하며 흑암(黑暗) 이 깊흠 우에 잇고 하나님의 신(神) 은 슈면(水面) 에 운행(運行) 하시니라

④ 地 는 定形 なく 曠空 く して 黒暗 淵 の 面 に あり 神 の 靈 水 の 面 を

땅은 정형 없고 텅 비고 흑암 깊은 위에 잇고 하나님의 영 물의 면을

覆 たり き

덮으셨다

27) 창세기 전체에서 각 역본들을 비교한 결과 58개 어휘를 찾을 수가 있었다. 필자의 “한국어 개역 성서의 용어가 일본어 번역 성서로부터 받은 영향 - 창세기를 중심으로”(2001년 2월,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참고.

구역은 한국어 고유의 토박이말인 ‘깜깜함’을 사용하고 있으나, 개역은 중국어 대표역본의 한자어 ‘晦冥’(회명)을 쓰지 아니하고 일본어 번역과 같은 ‘黑暗’(흑암)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이 낱말이 일본어 성서로부터 영향을 받은 말임을 입증해준다.

창세기 1:14

① 上帝曰, 穹蒼宜輝光衆著, 以分晝夜, 以定四時, 以記年日,

② 하나님이 골으샤디 하늘 궁창에 **빛쬐는 불들이** 잇서 쥬야 스이를 분변호야 표가 되고 스시와 일즈와 년한을 덩허며

③ 하나님이 갈아샤대 하늘의 궁창(穹蒼)에 **광명(光明)**이 잇서 쥬야를 난호게 하라 또 그 光明(광명)으로 하여 징조(徵兆)와 사시(四時)와 일자(日字)와 년한(年限)이 일우라

④ 神言たまひけるは 天の穹蒼に **光明** ありて 晝と夜とを 分ち 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광명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또 天象のため 時節のため 日のため 年のために 成べし

하늘 모양을 인헤 계절과 날과 년이 이루게 하라

‘穹蒼宜輝光衆著’(궁창의휘광중저)에서 보듯이 대표역본에는 ‘불’이 없으며, 대표역본과 구역이 번역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개역에서는 일본어 번역의 낱말 ‘光明’(광명)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창세기 2: 2

① 七日上帝工竣, 乃憩息,

②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임의 만드신 일을 못초신지라 그 만드신 일을 굿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섯스니**

③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니를 쎄에 맞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安息)하시니라**

④ 第七日に 神 其造りたる 工を 竣たまへり 卽ち 其造りたる 工を 竣て

일곱째 날에 하나님 그 만드신 일을 마치시니라 즉 그 만드신 일을 마치고 七日に 安息たまへり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구역은 대표역본을 따르지 않고 한국어 고유어를 사용하였지만, 개역은 대표역본의 한자어도 구역의 토박이말도 아닌 일본어 한자어 ‘安息’(안식)을 사용하고 있다.

창세기 6: 4

① 當時有偉丈夫在世, 緣上帝與世人女同室, 育此**英武**, 亘古以來, 聲名夙著.

② 당시에 건장(健壯)흔 **장부(丈夫)**가 세상에 잇더니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상 관호야 아들을 나흐매 또흔 **장스** - 니 곳 넷적에 잇는 유명흔 사람이러라

③ 당시(當時)에 쎄에 **네펠림**²⁸⁾이 잇섯고 그후(後)에도 하나님의 아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娶)하여 자식(子息)을 나흐스니 그들이 **용사(勇士)**라 고대(古代)에 유명(有名)한 사람이엇더라

④ 當時 地に **ネピリム** ありき 亦 其後 神の子輩 人の女の所に 入りて

당시 땅에 네펠림 있어 또 그 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 들어가

28) 이 부분은 음역인데, 구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개역에서 처음 나타난다.

子女を 生しめたりしが 其等も 勇士にして 古昔の 名聲ある 人なりき

자녀를 낳게 하였는데 그들도 용사이며 옛날의 명성 있는 사람이더라

앞의 단어에서 구역(장부)은 대표역본의 낱말과 같고, 개역은 일본어 번역에서 음역한 음가를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²⁹⁾ 그러나 뒤의 단어 “장스”에서는 구역은 대표역본의 “英武”를 따르지 아니하고 한국어 고유어로 번역하고 있고, 개역은 대표역본도 구역도 따르지 않고 일본어 번역과 같은 낱말 ‘勇士’(용사)를 사용하고 있다.

창세기 7:15

① 凡有血氣者, 牝牡各一, 遵上帝命, 就挪亞登方舟, 耶和華遂閉其門.

② 므릇 혈기(血氣) 있는 생물이 각각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에 오르니

③ 므릇 기식(氣息)이 있는 육체(肉體)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方舟)로 드러갔스니

④ 即ち 生命の氣息ある 諸の肉なる者 二宛 ノアに 來りて 方舟に いらぬ

즉 생명의 기식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자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에 들어갔으니

구역은 대표역본과 같은 한자어를 쓰고 있고, 개역은 구역을 따르지 아니하고 일본어 번역의 한자어와 같은 ‘氣息’(기식)을 사용하고 있다.

창세기 15: 2

① 亞伯蘭曰, 吾主耶和華將何以賜我, 蓋我無子, 惟大馬色人以利亞薩爲我家宰.[爲我家宰或曰將爲我嗣]

② 아브람이 졸으디 하느님 여호와여 무어스로 나를 주라하시니잇가 내가 무즈흐니 오직 이 다메섹 엘니에서가 장춧 나의 후스(後嗣)가 되리이다

③ 아브람이 갈아대 주(主)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잇가 나는 무자(無子)하오니 나의 상속(相續)자는 이 다메섹 엘니에셀이니이다

④ アブラム 言けるは 主 エホバよ 何を 我に 與んとしたまふや 我は 子なくして

아브람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니이까 나는 아이 없이

居り 此 ダマスコの エリエゼル 我が 家の 相續人なり

있고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 나의 집의 상속자니라

구역은 대표역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개역은 대표역본도 구역도 따르지 않고 일본어 번역과 같은 낱말 ‘相續(상속)’을 사용하고 있다.

창세기 17:11

① 故爾陽之皮必受割, 以徵我賜爾之約

② 너희는 너희 살에 할례(割禮)를 맞을지어다 내가 너희로 더브러 세운 언약의 증거가 되느니라

③ 너희는 양피(陽皮)를 버히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④ 汝等 其 陽の皮を 割べし 是 我と 汝等の 間の 契約の 徴なり

너희 그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계약의 표징이니라

29) 구약성서의 개역시기(1911-1937) 가운데 BFBS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 한글성서는 ‘Rules for the Guicance of Translators, Revisers & Editors, working in connection with the BFBS’라는 소책자를 따랐다. 그것을 『대한성서공회사 Ⅱ』p.121.에서 잘 요약하고 있다. 그 중에 음역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5. 번역하기보다는 차라리 음역이 되어야 할 때는, 문법적으로 음성학적인 원칙에 따라 세심하게 취급해야 한다.”

여기서 “네피림”라고 번역된 것은 위에 원칙을 세운 선교사들이 영·미 계통의 번역본들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서는 대표역본과 일본어 번역이 같은 한자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구역은 대표역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한자어를 사용하였다. 개역은 구역을 따르지 않고 '陽皮'(양피)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대표역본을 따른 것보다는 일본어 번역을 따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창세기 19:16

① 耶和華 尹羅得, 羅得尙遲延, 天使執其手, 與妻及女, 咸引之出, 置於邑外.

② 롯이 오히려 지체하나 여호와가 롯을 분상히 녀이시느니라 두 사람이 그의 손과 그 안희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어 고을 밖과 두고

③ 그러나 롯이 지체(遲滯)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안희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引導)하여 성(城)밖게 두니 여호와와피서 그의게 인자(仁慈)를 더하심이엇더라

④ 然るに 彼 遲延ひしかば 二人 其 手と 其 妻の 手と 其 二人の 女の手を 執て

그러므로 그 지체하니 두 사람이 그 손과 그 아내 손과 그 들의 딸의 손을 잡고
之を 導き出し 邑の 外に 置り エホバ 斯 彼に 仁慈를 加へたまふ

이것을 인도하여 읍의 밖에 두니 여호와 이와 같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라

구역은 대표역본을 따랐지만 한국어 고유어를 번역하였고, 개역은 구역을 따르지 않고 일본어 번역과 같은 낱말 '仁慈'(인자)를 사용하고 있다.

창세기 35:16

① 由伯特利徙, 去以法大無幾, 拉結臨產艱危.

② 벳엘에서 떠나 히브야 에브랏에 조금 못 밧쳐서 라헬이 희산하기에 림야 심히 어려운지라

③ 그들이 벳엘에서 발행(發行)하여 에브랏에 나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隔)한 곳에서 라헬이 림산(臨産)하여 심(甚)히 신고(辛苦)하더니

④ かくて ヤコブ 等 ベテルより いでたちしが エフラ타に 至る までは

그리하여 야곱 등 베텔에서 출발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는
尙 路の 隔ある 處にて 라헬 産に 의ぞ미 その 産 おもかり키

아직 길의 격한 곳에서 라헬이 해산에 임하여 그 해산이 심하였다.

구역은 대표역본을 따랐으나 한국어 고유어를 사용하였고, 개역은 구역을 따르지 않고 일본어 번역의 구문 '隔ある處'(격한 곳)를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

창세기 35:17

① 難産之際, 收生者曰, 毋懼, 爾又將得子.

② 희산하기 어려울 때에 희산 구원자가 굴으되 두려워하지마라 네가 또 아들을 얻는다 하니

③ 그가 난산(難産)할 즈음에 산파(産婆)가 그의게 날아대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득남(得男) 하나니라 하매

④ 彼 難産に 의ぞめる 時 産婆 之に いひけるは 懼るなかれ

그 난산에 임할 때 산파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汝 また 此 男の子를 得たり

그대 또 이 남자 아이를 얻었노라

구역은 대표역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국어 고유어로 번역하였다. 개역은 대표역본도 구역도 따르지 않고 일본어 번역과 같은 낱말 '産婆'(산파)를 사용하고 있다.

4.2. 창세기에 반영된 중국어, 일본어 번역 성서의 어휘와 구문

4.1.에서 고찰한 결과를 분석하여 놓은 보기들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한국어 개역과 일본어 번역의 어휘와 구문들이 일치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일치하는지 아래에서 분류해 보도록 한다.

1) 구역에서는 중국어 대표역본의 한자어와 같은 낱말을 사용하였거나 혹은 같은 뜻의 한국어 고유어(토박이말)로 번역하였지만, 개역 과정에서 그 번역이 일본어 번역과 동일해진 경우.

a. 한국어 구역이 대표역본과 동일한 한자어를 사용한 경우.

창세기 4:23, 7:15, 17:23, 17:24, 17:25, 25:6, 30:2, 42:4, 43:27

	중국어 대표역본	한국어 구역	한국어 개역	일본어 문어역
창 4:23	傷	상(傷)	창상(創傷)	創傷
창 7:15	血氣	혈기(血氣)	기식(氣息)	氣息
창 17:23	行割禮	할례(割禮)를 행하니	양피(陽皮)를 버렸스니	陽の皮を割たり
창 17:24	割禮	할례(割禮)	양피(陽皮)를 버힌	陽の皮を割
창 17:25	割禮	할례(割禮)	양피(陽皮)를 버힌	陽の皮を割
창 25:6	東方	동방	동국(東國)	東の國
창 30:2	怒	노하야	노(怒)를 발(發)하여	怒を發して
창 42:4	害	해(害)	재난(災難)	災難
창 43:27	問安	문안(問安)	안부(安否)	安否

b. 한국어 구역이 대표역본과 다른 한자어를 사용한 경우.

창세기 20:18, 25:23, 26:28, 28:13, 31:42, 34:24, 39:21, 46:1, 47:27

	중국어 대표역본	한국어 구역	한국어 개역	일본어 문어역
창 20:18	不能生育.	싱산(生産) 못 하게 함	태(胎)를 닳치셨슴	胎を閉たまへり
창 25:23	民	빅성	國民	國民
창 26:28	立誓	언약	계약(契約)	契約
창 28:13	祖	조상	조부(祖父)	祖父
창 31:42	辛勤	신고힘	고난(苦難)	苦難
창 34:24	出自	리왕	출입(出入)	出入
창 39:21	司獄	옥스장	던옥(典獄)	典獄
창 46:1	獻祭	제스(祭祀)	희생(犧牲)	犠牲
창 47:27	業	기업(基業)	산업(産業)	産業

c. 한국어 구역이 대표역본의 한자어를 한국어 고유어(토박이말)로 번역한 경우.

창세기 18:8, 18:12, 18:25, 19:16, 29:15, 41:52, 43:18

	중국어 대표역본	한국어 구역	한국어 개역	일본어 문어역
창 18:8	乳	소젖(소젖)	우유(牛乳)	牛乳
창 18:12	老	늙고	로쇠(老衰)	老衰
창 18:25	相等	꺄치 디접흔	균등(均等)	均等
창 19:16	矜恤	불상히 녀이시논	인자(仁慈)	仁慈
창 29:15	何值	삭	보슈(報酬)	報酬
창 41:52	季子	둘재 아들	차자(次子)	次の子
창 43:18	執	잡아	억류(抑留)	抑留

d. 구역에서는 대표역본의 용어를 채용하여 번역하였지만, 개역에서는 일본어 번역에서 음역한 것과 같아진 경우.

창세기 6:4(네펬림)

	중국어 대표역본	한국어 구역	한국어 개역	일본어 문어역
창 6:4	丈夫	장부(丈夫)	네펬림	ネピリム

2) 구역에서 중국어 대표역본에서 사용한 낱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역 과정에서 일본어 번역과 동일해진 경우.

a. 구역에서 한국어 고유어(토박이말)를 사용한 경우

창세기 1:2, 1:14, 1:30, 2:2, 6:4, 15:11, 41:34, 43:32

	중국어 대표역본	한국어 구역	한국어 개역	일본어 문어역
창 1:2	晦冥	캄캄함	흑암(黑暗)	黑暗
창 1:14	光衆	빛최논 불들	광명(光明)	光明
창 1:30	食之	먹을 거	식물(食物)	食物
창 2:2	憩息	쉬섯스니	안식(安息)하시니라	安息たまへり
창 6:4	英武	장스	용사(勇士)	勇士
창 15:11	牲牲	고기	사체(死體)	死體
창 41:34	國	짜 맞흔	국중(國中)	國中
창 43:32	同席	함씬 먹논	배식(陪食)	陪食

b. 다른 한자어를 사용(12:5)한 경우.

창세기 7:22, 10:5, 11:6, 12:10, 14:15, 15:2, 17:14, 18:19, 19:11, 20:8, 35:18, 37:35, 39:6, 42:23,

43:7, 49:3

	중국어 대표역본	한국어 구역	한국어 개역	일본어 문어역
창 7:22	呼吸	생명(生命)의 기운(氣運)	생물(生物)의氣息(氣息)	生命の氣息
창 10:5	民族	지파(支派)	종족(宗族)	宗族
창 11:6	鳥能底止	무소불위(無所不爲)	금지(禁止)	禁止
창 12:10	大饑	흉년(凶年)	기근(饑饉)	饑饉
창 14:15	隊伍	종들	가신(家臣)	家臣
창 15:2	家宰	후스(後嗣)	상속(相續)	相續
창 17:14	割	할례(割禮)를	양피(陽皮)	陽の皮
창 18:19	公	공변됨	공도(公道)	公道
창 19:11	不得	곤난(困難)	곤비(困憊)	困憊
창 20:8	僕衆	신하	신복(臣僕)	臣僕
창 35:18	氣將絶時	운명홀 때	혼(魂)이 떠나려 할 때	魂さらんとする時
창 37:35	幽冥	디하	음부(陰府)	陰府
창 39:6	丰采	준슈하야	용모(容貌)	容貌
창 42:23	籍譯	통스	통변(通辯)	通變
창 43:7	戚族	족속(族屬)	친족(親族)	親族
창 49:3	有威有能	영광(榮光)	위광(威光)	威光
	獨擅	풍성(豊盛)흔	탁월(卓越)	卓越

c. 다른 한자어로 나누어서 번역한 경우.

창세기 2:7, 27:39, 35:17, 44:16

	중국어 대표역본	한국어 구역	한국어 개역	일본어 문어역
창 2:7	嘘氣	생명(生命)의 기운(氣運)	생기(生氣)	生氣
창 27:39	居之處	곳에서 떠나 거하야	주소(住所)	住所
창 35:17	收生者	희산 구원자	산파(産婆)	産婆
창 44:16	焉能自伸	무슴 발며을 흐리	정직(正直)	正直

d. 대표역본에서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 한자어를 사용한 경우.

창세기 14:1, 41:35

	중국어 대표역본	한국어 구역	한국어 개역	일본어 문어역
창 14:1	X	시절(時節)	당시(當時)	當時
창 41:35	X	슈하	관리(官吏)	官吏

3) 대표역본과 일본어 번역의 한자어가 동일한 경우.

창세기 17:11

	중국어 대표역본	한국어 구역	한국어 개역	일본어 문어역
창 17:11	陽之皮	살	(양피)陽皮	陽の皮

5. 결론

필자가 이 논문에서 제시한 본문은 창세기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구역과 개역의 문장구조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시기 동안에 나타난 개역과 구역을 비교해보면, 개역보다 구역에 한국어 고유어(토박이말)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개역에서는 한국 고유의 토박이말이 많이 없어지고 그 대신 한자어로 바뀌었다. 그러한 한자어가 어떤 한자어였는지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미루어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즉, 중국에서 왔거나, 일본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제 1.장에서 현재 한국 교회가 가장 널리 쓰고 있는 번역인 개역 성서에서 발견된 ‘면박’(面帕), ‘식사’(食事)라는 어휘들을 염두에 두고 논문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面帕’(면박)은 전술한 대로 한국어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어휘이다. 또한 이 단어는 개역 성서 이전의 구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어 번역의 성격상 많은 번역본들을 저본(底本)으로 삼거나 또한 참고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가능성을 중국어 문리역본 중에서 대표역본과, 일본어 문어역에서 찾고자 하였다. 필자의 방법은 중국어 대표역본, 한국어 구역, 한국어 개역, 일본어 문어역의 각 구절들을 같이 나열하는 것이었고, 그 네 가지 본문을 나열한 결과, 한국어 개역에서 일본어 문어역의 어휘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다.

여기서 개역 성서와 구역 성서의 연속성을 고찰해 볼 때, 개역이 구역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구역이 중국어 문리역본들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중국어 번역본과 같은 어휘를 쓰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구역 단계에서도 이러한 점이 있는데, 그 후에 번역이 이루어진 개역이 대표역본에서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개역 성서가 이루어진 시대 배경을 고려할 때, 중국어 대표역본보다는 일본어 번역 성서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4.1.에서는, 3.장에서 발견한 어휘들을 근거로, 창세기 본문 전체를 분석해보았다. 네 개의 본문을 함께 나열하였다. 그 순서는 중국어 대표역본, 한국어 구역, 한국어 개역, 일본어 문어역

으로 하였다. 4.2.에서는 4.1.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분류하였다. 분류한 결과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본문 분석은 한국어 개역과 일본어 문어역의 어휘가 일치하는 구절들만 뽑아냈다. 그래서 개역이 구역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다. 구역은 중국어 대표역본의 영향이 크다고 하기 때문에 필자는 거기서부터 분석을 시작하였다. 분석 결과 구역은 대표역본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않았을 경우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더욱 세밀한 연구가 기대되는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구역이 개역에 이르러서 어떤 변화를 거쳤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구역이 중국어 대표역본을 따랐을 때, 구역이 대표역본의 한자어와 동일한 한자어를 사용한 경우, 다른 한자어를 사용한 경우, 한국어 고유어(토박이말)로 번역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졌다. 그런데 이것들이 개역에 이르러서 다 일본어 번역과 같은 낱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개역에서는 많은 낱말들이 일본 한자어로 바뀌었고, 또한 한국어 고유어가 파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역이 중국어 대표역본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창세기 전체 중에서 한국어 개역과 일본어 문어역의 어휘가 서로 같은 구절을 58개 추출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어 개역이 일본어 번역 성서로 하여금 저본(底本)을 삼을 정도까지는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한국어 개역 성서가 일본어 번역 성서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로서는 충분하다. 더 나아가 그 당시에 한국인 번역자들이 많은 번역 역본들 가운데 특별히 일본어 번역 성서를 많이 참고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일본 한자어들은 오랫동안 쓰이면서 이제는 한국의 성서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어떤 한자어들은 여전히 어렵다. 우리들의 과제는, 성서 번역에 있어서, 쉽고 정확한 한국어 대응어를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